

# 신발 분야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 -2008~2017년에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The Analysis on the Research Trends Related to Shoes Industry in Korea  
-Focused on the Theses Presented between 2008 and 2017-

이재영

평택대학교 패션디자인및브랜드학과

Jae-Young Lee(identityy@ptu.ac.kr)

## 요약

현대 패션에 있어 산업 구조의 세분화로 신발 산업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분야에서의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신발 산업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기존 학문 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신발 관련 연구의 동향을 게재방식, 연구내용, 연구방법별로 살펴본 결과, 첫째, 게재방식의 경우 연도는 2015년 이후, 저자 수는 1인과 2인 공저, 소속 기관은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산업체와 연계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내용의 경우 시대는 21세기, 지역은 한국, 주제는 마케팅과 디자인이 주를 이루어 다양한 시대와 폭 넓은 지역, 학제 간의 융합적 주제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었다. 셋째, 연구방법의 경우 사례연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주제별로 사용하는 연구방법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보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여러 관점에서의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넷째, 연구 유형별 차이점의 경우 방법에 있어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연구유형과 관계없이 주제에 따라 특정한 연구방법이 선호되어 신발 분야 연구에서 연구방법이 유의미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 중심어 : | 신발 | 연구 동향 | 게재방식 | 연구내용 | 연구방법 |

## Abstract

As the shoes industry has been strengthened due to the contemporary fashion industry becoming segmented more and m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 shoes industry through more in-depth research on the relevant fields. Accordingl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search trends related to shoes in Korea on the aspect of the publication methods, research contents and research methodologies for identifying the existing research status. In accordance with the analysis, the researches had been published since 2015 and presented by one author or two co-authors. The authors of researches were mostly affiliated to the colleges. Thus, it was identified that the professional research should be implemented in cooperation with the industry. For the research contents, the researches related to the shoes industry focused on the 21st century in the period field and marketing and design in the theme field. Then, it is required to investigate the converged interdisciplinary themes in wider areas in more diverse periods. Next, the case study accounted for the highest ratio in the methodology. Moreover, the methodology applied per theme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ly, the researches need to be conducted through more diverse viewpoints and methodologies. In case of the difference per research type, the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only in the research approaches. Furthermore, the specific methodology was preferred per theme regardless of the research types. Then, it was found that the methodology played the significant role in the researches on the shoes industry.

■ keyword : | Shoes | Research Trend | Publication Method | Research Content | Research Methodology |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평택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

접수일자 : 2019년 01월 31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4월 05일

수정일자 : 2019년 04월 04일

교신저자 : 이재영, e-mail : identityy@ptu.ac.kr

## I. 서론

현대 패션은 관련 시장의 확대에 따라 의상에 치중되었던 산업 구조가 세분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상품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가방 및 신발 등 패션 잡화는 전체 패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의 럭셔리 패션 업체들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적으로 신발 산업을 강화하고 있다. 그 예로 2016년 하와이의 매장을 신발 전용 매장으로 개편한 프랑스의 샤넬(Chanel), 전체 상품에서 신발의 비중을 약 20% 정도 늘린 이탈리아의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를 들 수 있다. 이 같은 럭셔리 패션 브랜드들의 신발 산업 강화는 해당 업계의 신발 매출이 2013년 이후 2년간 23% 증가하는 등 전체 럭셔리 시장의 성장률인 15%를 웃도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16년, 신발 산업이 향후 5년간 매년 5%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높은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였다[1].

이렇게 세분화되는 패션 산업계의 현상을 반영하도록 해외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패션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영역과 주제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고 여러 학문 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상호학제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에 피터 맥닐(Peter McNeil)은 자신의 연구에서 패션이 본질적으로 상호학제적 분야임을 주장하며 향후 다학제적이고 다중적인 방향의 패션 연구에 대한 학문적 필요성을 언급하였다[2]. 그러나 국내의 패션에 관한 연구는 이 같은 패션 산업의 흐름, 세계적인 학문 경향과 상관없이 아직까지 의상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각 세부 영역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의 부재와 관련하여 국내 연구의 편중화 현상이 반복되며 균형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 분야의 학문이 독자적인 이론으로 형성되어 발전하면서 학문 활동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현재 연구 분야의 위상을 점검하고 미래 연구 방향을 예측함에 있어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진 패션에

관한 연구는 의상을 중심으로 디자인과 미학, 복식사를 비롯하여 마케팅, 의복구성, 피복과학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연구의 발전에 따라 전반적인 패션 연구에 관한 동향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패션 산업의 세분화에도 불구하고 패션 연구에 대한 분석은 패션 전반에 걸친 연구 혹은 의상에 관한 연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 각 아이템에 관한 세부적인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즉, 패션 연구의 동향 분석은 대부분 특정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패션 전반에 관한 분석에 머물거나 의상 연구에만 국한되어 영역별, 분야별 세부 동향의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국내 패션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내에서도 다학제적인 주제의 연구를 개발, 발전시켜 패션 연구의 영역을 보다 확장하기 위해 분야별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사료된다. 또한 향후 연구자에게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전체 연구의 경향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편중된 연구의 경향은 단지 학문적인 발전의 저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패션 산업에 대한 기초 자료의 부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점차 학제 간의 융합이 증가하고 상호협력적인 학술 교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신발 분야에 관한 국내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의 연구 동향과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신발 관련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10년 간 발표된 신발 분야의 국내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의 게재방식과 연구내용, 연구방법을 살펴보고, 그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다양하고 깊이 있는 국내 연구의 필요성을 규명하고 향후 진행될 신발 관련 연구와 산업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함에 있다. 나아가 일부 주제에 집중된 연구의 편향성을 지양하고 부족한 연구 영역을 살펴 패션 분야에서 좀 더 다양한 주제의 논문이 질적, 양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토대가 되기 위함이다.

##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신발 분야 국내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의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으로서, 본 연구의 구성은 크게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의 게재방식과 연구내용,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주제 및 방법에 있어 연구유형별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학술지논문의 경우 저자가 학위논문과 동일한 주제로 발표하는 경우가 있으나, 학위논문의 핵심이 되는 일부분을 다루거나 내용을 보충하여 구성하므로 두 경우 모두를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각 항목별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게재방식은 연도와 저자 수, 소속 기관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연도는 2000년 중반 이후부터 확대되기 시작한 신발산업의 흐름에 따라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즉 최근 10년 동안 게재된 논문의 게재 편수를 1년 단위로 조사할 것이다. 저자 수와 소속 기관에 관해서는 학위논문이 개인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에서 연구되는 특성 상 분석에서 제외하고 학술지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학술지논문의 경우 연구의 저자 수를 중심으로 단독 및 공저자 수, 소속 기관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할 것이다.

둘째, 분석내용은 연구의 시대, 지역, 주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시대는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19세기를 기점으로 19세기 이전, 19세기, 20세기, 21세기 등으로 구분할 것이다. 시대의 구분은 본 연구가 신발을 주제로 한 전체 논문에 대한 동향 분석이므로 특정시대로 한정하지 않았다. 지역은 한국, 아시아, 유럽, 미주,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며 주제는 의상의 분류 기준을 토대로 그에 상응하는 디자인, 마케팅, 소재, 설계 및 생산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할 것이다.

셋째, 분석방법은 김미현(2009)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분류 기준인 문헌연구와 사례연구, 상관관계연구와 실험연구, 동적연구와 조사연구 등의 연구방법론을 토대로 분석하고자 한다. 문헌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한 신발 관련 논문을 포함하며, 사례연구는 개인이나 집단, 기관, 지역 사회 등과 같은 사회 단위에 나타난 현상 및 환경적 요인을 연구하는 논문을 포함한다. 상관관계연구

는 특정 요인과 신발 분야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으로 둘 혹은 그 이상 변수의 변화 정도를 알아내는 연구를 포함하며 실험연구는 일정한 기구와 장치를 이용하여 특정한 현상을 유발하여 결과를 관측, 측정된 논문을 포함한다. 동적 연구는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방법을 개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논문을 포함하며, 조사연구는 현상을 사실 그대로 조사, 기술하고 해석하는 연구로서 질문지법, 면접법, 문헌자료 조사법 등을 활용한 논문을 포함한다[3].

위의 분석을 위한 연구 대상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바탕으로 국내 학위논문과 학술지에서 수집한 논문을 중심으로 할 것이다. 즉,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동안 발표된 논문 중 신발 관련 용어인 신발, 슈즈, 구두, 풋웨어 등을 키워드로 수집된 학위논문 1489편, 학술지논문 871편 중 신발이 중심 주제를 이루는 각각의 논문 69편과 146편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또한 수집된 논문은 SAS(ver.13.2)를 사용하고, 검정 방법은 카이제곱 검정(chi-squared test;  $\chi^2$ )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III. 연구의 결과 및 해석

### 1. 게재방식별 연구 동향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발표된 신발 분야 관련 논문 215편의 연구연도별 동향은 [표 1]과 같다. 연구의 연도를 보면 2009년 총 28편이 발표된 이후 감소되었다가 2015년 30편, 2016년과 2017년에 모두 27편이 발표되어 2015년 이후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것을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215편의 논문 중 32%인 69편은 학위논문, 68%인 146편은 학술지논문으로 집계되어 학술지논문이 두 배에 가까운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연도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나 학위논문은 2013년, 학술지논문은 2015년 큰 증가세를 보여 2010년대 초반에 신발 관련 논문이 활발히 발표되었으며 이후 학위논문보다는 학술지논문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저자 수의 경우 총 146편 중 1인이나 2인 공저가 58편과 56편으로 각각 40%와 38%를 차지해 전체 중 78%의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 외 4인 이상 공저의 방식도 15편, 10%로 나타나 신발 분야에서 공동 연구가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사료된다.

소속 기관에 있어서는 전체 162편의 사례 중 대학이 140편으로 86%를 차지하여 주로 대학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외 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이 17편으로 11%의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산업체에서의 연구는 5편에 불과해 전체 중 3%에 그쳤다. 신발은 패션 상품이지만 보행 등 신체 활동과 관련하여 어느 패션 아이템보다 기능을 필요로 하는 상품임을 고려해 볼 때, 대부분의 연구가 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과는 산업체를 주체로 한 단독 혹은 대학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좀 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확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향후 산업체를 중심으로 한 연구 또는 산학협력적인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2. 연구내용별 연구 동향

연구내용별 연구 동향에서 먼저 시대를 살펴보면, 21세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체 230편의 사례 중 189

편으로 전체에서 82.2%의 높은 비율을 보여 21세기에 관한 논문이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2]. 다음으로 20세기는 21편으로 9.1%, 19세기 이전은 16편으로 7%를 보였다. 반면 19세기에 관한 논문은 4편으로 1.7%를 차지하여 21세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큰 차이를 보였다. 학위논문의 경우 21세기에 관한 연구가 84%의 비중을 차지하고 그 외 20세기, 19세기 이전, 19세기 순으로 모두 10% 미만의 비율을 보였다. 학술지 논문 역시 21세기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져 전체 중 81.29%를 보였으며 다음은 학위논문과 마찬가지로 20세기, 19세기 이전, 19세기 순으로 나타났다. 패션은 산업 분야 중에서도 상품 주기가 짧은 편으로 동시대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겠지만 다양한 상품의 기획 및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전 시대에 대한 좀 더 폭 넓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은 전체 283편의 사례 중 한국에 대한 논문이 187편으로 66.1%를 차지했으며, 유럽과 미주, 아시아가 각각 32편으로 11.3%, 30편으로 10.6%, 26편으로 9.2% 등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기타 지역에 대한 연구는 8편으로 2.8%를 나타내 소수의 연구에서만 다뤄지고 있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나눠 살펴보면, 학위논문의 67.03%가 한국에 관한 연구로 이루어졌으며 미

표 1. 게재방식별 연구 동향

게재방식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합계		
	발표 수(n)	비율(%)	발표 수(n)	비율(%)	발표 수(n)	비율(%)	
연도	2008	7	3.00	9	4.00	16	7.00
	2009	8	4.00	20	9.00	28	13.00
	2010	6	3.00	13	6.00	19	9.00
	2011	5	2.00	13	6.00	18	8.00
	2012	3	1.00	10	5.00	13	6.00
	2013	11	5.00	7	3.00	18	8.00
	2014	6	3.00	13	6.00	19	9.00
	2015	7	3.00	23	11.00	30	14.00
	2016	8	4.00	19	9.00	27	13.00
	2017	8	4.00	19	9.00	27	13.00
	합계	69	32.00	146	68.00	215	100.00
저자 수	1인	-	-	58	40.00	58	40.00
	2인	-	-	56	38.00	56	38.00
	3인	-	-	17	12.00	17	12.00
	4인 이상	-	-	15	10.00	15	10.00
	합계	-	-	146	100	146	100.00
소속 기관	대학	-	-	140	86.00	140	86.00
	연구소	-	-	17	11.00	17	11.00
	산업체	-	-	5	3.00	5	3.00
	합계	-	-	162	100.00	162	100.00

주가 12.09%, 유럽이 10.99%로 나타났다. 아시아와 기타 지역은 8.79%와 1.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학술지 논문은 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65.63%, 유럽이 11.46%, 미주가 9.9%, 아시아가 9.38%로 나타났으며 기타 지역은 3.65%의 비율을 보였다. 이 같은 비율을 종합해 볼 때, 지역에 관해서는 한국이 두 가지 분야의 논문에서 모두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본 연구가 국내 연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유럽과 미주가 비슷한 분포를 보여 신발에 관한 연구가 한국을 제외하고는 주로 서양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는 전체 233편의 사례 중 마케팅이 88편으로 37.8%, 디자인이 87편으로 37.3%를 차지하여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그 외에는 설계 및 생산이 46편으로 19.7%, 소재가 12편으로 5.2%의 비중을 보여 마케팅과 디자인을 주제로 한 연구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연구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위논문의 경우 디자인이 48.65%, 마케팅이 32.43%를 차지해 디자인이 조금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설계 및 생산과 소재는 13.51%와 5.41%로 나타났다. 학술지논문의 경우 마케팅이 40.25%, 디자인이 32.08%로 나타나 학위논문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설계 및 생산이 22.64%, 소재가 5.03%로 두 주제의 비율은 학위논문과 마찬가지로 높지 않았다. 즉, 신발 분야에서는 주로 디자인과 마

케팅, 두 주제가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3. 연구방법별 연구 동향

연구방법은 전체 311편의 사례 중 사례연구가 88편으로 28.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표 3]. 다음으로는 조사연구가 73편으로 23.5%, 동적연구가 57편으로 18.3%, 상관관계연구가 46편으로 14.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실험연구가 29편으로 9.3%, 문헌연구가 18편으로 5.8%를 나타내 10% 이하의 비율을 보였다.

이를 연구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학위논문의 경우 사례연구와 동적연구, 조사연구, 실험연구, 상관관계연구, 문헌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례연구는 전체 분석방법 중 33.04%를 차지하여 학위논문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동적연구도 25.89%의 비율을 보여 16.96%로 나타난 조사연구와 함께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실험연구와 상관관계연구, 문헌연구는 각각 9.82%, 8.93%, 5.36%로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학술지논문의 경우 조사연구와 사례연구가 각각 27.14%, 25.63%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상관관계연구와 동적연구는 18.09%, 14.07%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험연구와 문헌연구는 9.05%와 6.03%를 보여 다른 분석방법에 비해 낮은 비율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 연구내용별 연구 동향

연구내용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합계		
	발표 수(n)	비율(%)	발표 수(n)	비율(%)	발표 수(n)	비율(%)	
시대	19세기 이전	4	5.33	12	7.74	16	7.00
	19세기	1	1.33	3	1.94	4	1.70
	20세기	7	9.33	14	9.13	21	9.10
	21세기	63	84.00	126	81.29	189	82.20
	합계	75	100.00	155	100.00	230	100.00
지역	한국	61	67.03	126	65.63	187	66.10
	아시아	8	8.79	18	9.38	26	9.20
	유럽	10	10.99	22	11.46	32	11.30
	미주	11	12.09	19	9.90	30	10.60
	기타	1	1.10	7	3.65	8	2.80
합계	91	100.00	192	100.00	283	100.00	
주제	디자인	36	48.65	51	32.08	87	37.30
	마케팅	24	32.43	64	40.25	88	37.80
	소재	4	5.41	8	5.03	12	5.20
	설계 및 생산	10	13.51	36	22.64	46	19.70
	합계	74	100.00	159	100.00	233	100.00

또한 연구의 내용에 있어 핵심이 되는 주제와 방법 간에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주제에 따른 연구방법을 교차분석해 본 결과, 주제별로 사용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었으며 그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p\text{-value} < .0001$ ) [표 4]. 이를 세부적 살펴보면, 디자인 분야의 경우 기준에 발표된 신발 디자인을 분석하는 사례연구가 38.33%로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활용도를 보였으며, 그 외 동적연구가 25.83%, 문헌연구 15%, 조사연구 12.5%, 상관관계연구와 실험연구 4.17%의 비율을 보였다. 마케팅 분야의 경우 조사연구가 40.74%로 가장 많이 이용되었고, 상관관계연구 27.41%, 사례연구 22.22%, 동적연구 7.41%로 나타났다. 실험연구와 문헌연구는 각각 1.48%와 0.74%로 매우 낮은 활용도를 보였다. 소재 분야의 경우 실험연구와 동적연구는 각각 40%와 33.33%로 전체 연구방법의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사례연구 13.33%, 상관관계연구와 조사연구가 6.67%의 비율을 보였다. 반면 소재 분야에서 문헌연구는 사용되지 않았다. 설계 및 생산 분야의 경우 실험연구가 27.54%, 사례연구와 동적연구가 24.64%로 고른 비율로 나타났으며, 그 외 조사연구 11.59%, 상관관계연구 8.7%, 문헌연구 2.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방법별 연구 동향

연구방법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합계		
	발표 수(n)	비율(%)	발표 수(n)	비율(%)	발표 수(n)	비율(%)	
방법	문헌연구	6	5.36	12	6.03	18	5.80
	사례연구	37	33.04	51	25.63	88	28.30
	상관관계연구	10	8.93	36	18.09	46	14.80
	실험연구	11	9.82	18	9.05	29	9.30
	동적연구	29	25.89	28	14.07	57	18.30
	조사연구	19	16.96	54	27.14	73	23.50
	합계	112	100.00	199	100.00	311	100.00

표 4. 주제에 따른 연구방법

구분	문헌연구	사례연구	상관관계연구	실험연구	동적연구	조사연구	합계	카이제곱 통계량	p-value
디자인	18	46	5	5	31	15	120		
	15.00	38.33	4.17	4.17	25.83	12.50	100		
마케팅	1	30	37	2	10	55	135		
	0.74	22.22	27.41	1.48	7.41	40.74	100		
소재	0	2	1	6	5	1	15		
	0.00	13.33	6.67	40.00	33.33	6.67	100		
설계 및 생산	2	17	6	19	17	8	69		
	2.90	24.64	8.70	27.54	24.64	11.59	100		

즉, 디자인 분야는 사례연구, 마케팅 분야는 조사연구, 소재분야는 실험연구, 설계 및 생산 분야는 실험, 사례, 동적연구가 선호되었다.

#### 4. 연구유형별 차이점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을 비교해 보면 시대와 지역에 있어 유의확률( $p\text{-value}$ ) 값은 0.9017과 0.7816으로 나타났다 [표 5]. 주제와 방법의 경우 유의확률 값은 0.0829와 0.0145의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에 있어 시대와 지역, 주제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고 유의확률 값이 0.05 이하로 나타난 방법에 관해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방법은 학위논문의 경우 사례연구와 동적연구, 조사연구, 실험연구와 상관관계연구, 문헌연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술지논문의 경우 조사연구와 사례연구, 상관관계연구, 동적연구, 실험연구와 문헌연구 순으로 나타나 연구유형별로 비중의 차이를 보였다.

학위논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사례연구는 상세하고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며 기술과 주제를 보고하는 질적 연구접근의 하나 [4]로서 현상이나 사회적 단위를 총체적으로 기술하고 설명 [5]한다. 특히 신발 분야 연구

에서는 주로 “여러 사례를 동시에 연구해 현상이나 일반적 상황에 대한 조사를 위해 수행되는[6]” 집합적(collective) 사례연구가 사용되었다. 학술지논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조사연구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연구방법으로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기 보다 현재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7].”

이와 같이 연구유형별로 사용된 연구방법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에서 선호되는 주제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위논문의 경우 가장 비중이 높은 디자인 분야 논문에서 디자인 사례를 통해 신발 분야의 일반적 현상이나 상황을 유추하기 때문이며, 학술지논문의 경우 마케팅 분야의 연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질문지법이나 면접법이 많이 사용되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구유형별로 주제에 따른 분석방법을 교차분석 해 본 결과,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의 유의확률 값은 0.0001로 두 가지 유형의 논문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위논문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디자인 분야에서는 사례연구가 40%, 동적

연구가 34.55%로 나타났다. 다음 마케팅 분야에서는 사례연구와 조사연구가 30.95%, 상관관계연구가 23.81%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설계 및 생산 분야에서는 실험연구와 동적연구가 33.33%로 같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사례연구가 27.78%를 차지하여 비교적 고른 분포로 나타났다. 학술지논문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마케팅 분야에서 조사연구가 45.16%, 상관관계연구가 29.03%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디자인 분야에서는 사례연구가 36.92%, 문헌연구와 동적연구가 18.46%로 나타났다. 그 외 설계 및 생산 분야에서는 실험연구 25.49%, 사례연구 23.53%, 동적연구 21.57%의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한편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 모두 소재 분야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어려웠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신발 분야의 국내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최근 10년간 발표된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을 조사하

표 5. 연구유형별 차이점

구분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카이제곱 통계량	p-value	
	발표 수(n)	비율(%)	발표 수(n)	비율(%)			
시대	19세기 이전	4	5.33	12	7.74	0.5771	0.9017
	19세기	1	1.33	3	1.94		
	20세기	7	9.33	14	9.13		
	21세기	63	84.00	126	81.29		
	합계	75	100.00	155	100.00		
지역	한국	61	67.03	126	65.63	1.75	0.7816
	아시아	8	8.79	18	9.38		
	유럽	10	10.99	22	11.46		
	미주	11	12.09	19	9.90		
	기타	1	1.10	7	3.65		
	합계	91	100.00	192	100.00		
주제	디자인	36	48.65	51	32.08	6.677	0.0829
	마케팅	24	32.43	64	40.25		
	소재	4	5.41	8	5.03		
	설계 및 생산	10	13.51	36	22.64		
	합계	74	100.00	159	100.00		
방법	문헌	6	5.36	12	6.03	14.1832	0.0145
	사례	37	33.04	51	25.63		
	상관관계	10	8.93	36	18.09		
	실험	11	9.82	18	9.05		
	동적	29	25.89	28	14.07		
	조사	19	16.96	54	27.14		
	합계	112	100.00	199	100.00		

표 6. 연구유형별 주제에 따른 연구방법

구분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문헌 연구	사례 연구	상관관계 연구	실험 연구	동적 연구	조사 연구	합계	카이제곱 통계량	p-value	문헌 연구	사례 연구	상관관계 연구	실험 연구	동적 연구	조사 연구	합계	카이제곱 통계량	p-value
디자인	6	22	0	2	19	6	55	67.44	<.0001	12	24	5	3	12	9	65	96.67	<.0001
	10.91	40.00	0.00	3.64	34.55	10.91	100			18.46	36.92	7.69	4.62	18.46	13.85	100		
마케팅	0	13	10	1	5	13	42	67.44	<.0001	1	17	27	1	5	42	93	96.67	<.0001
	0.00	30.95	23.81	2.38	11.90	30.95	100			1.08	18.28	29.03	1.08	5.38	45.16	100		
소재	0	1	0	3	1	0	5	67.44	<.0001	0	1	1	3	4	1	10	96.67	<.0001
	0.00	20.00	0.00	60.00	20.00	0.00	100			0.00	10.00	10.00	30.00	40.00	10.00	100		
설계생산	0	5	0	6	6	1	18	67.44	<.0001	2	12	6	13	11	7	51	96.67	<.0001
	0.00	27.78	0.00	33.33	33.33	5.56	100			3.92	23.53	11.76	25.49	21.57	13.73	100		

고 게재방식과 연구내용, 연구방법별로 항목에 따라 분석하였다. 또한 각 항목은 게재방식의 경우 연구연도와 저자 수, 소속 기관, 내용의 경우 시대와 지역, 주제, 방법의 경우 문헌연구와 사례연구, 상관관계연구, 실험연구, 동적연구, 조사연구 등의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이 같은 분석을 위해 신발 분야의 국내 학위논문 69편과 학술지논문 146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된 논문은 SAS(ver.13.2)을 사용하고, 검정방법은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발 관련 국내 연구의 게재방식별 연구 동향은 2009년에 높은 비율을 보인 이후 낮아져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저자 수의 경우 1인과 2인 공저의 형태가 대다수를 이루었으며 그 외 3인, 4인 공저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속 기관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가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연구소, 산업체 등 다른 기관과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산업체와 연계된 연구의 부재를 나타내는 결과로서 산업체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내용에 따른 연구 동향은 시대의 경우 21 세기가 대다수를 이루었으며 20세기와 19세기 이전, 19 세기 순으로 나타나 현대 신발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은 국내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신발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외 유럽과 미주, 아시아 등이 유사한 비

율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내 연구에 있어 지역적 대상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폭넓은 시대와 지역의 신발을 연구하여 국내 신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주제에 있어서는 마케팅과 디자인이 유사한 비율로 연구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으며 그 외 설계 및 생산, 소재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신발 산업이 의상에 비해 의학이나 공학 등을 기반으로 하는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향후 학제 간의 융합적인 연구를 통해 신발 분야에서도 보다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 동향은 사례연구와 조사연구가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그 외 동적연구와 상관관계연구, 실험연구, 문헌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주제별로 살펴 본 결과 디자인 분야에서는 사례연구, 마케팅 분야는 조사연구, 소재 분야에서는 실험연구, 설계 및 생산 분야에서는 실험연구와 사례연구, 동적연구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를 통해 신발 분야의 연구는 각 분야별로 분석방법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한편으로 분야별로 다양한 방법의 분석이 시도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석방법에 따른 여러 관점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연구유형별 차이점은 방법에 있어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제에 있어 학위논문은 디자인, 학술지



논문은 마케팅 분야가 우위를 차지하였으나 그 외 설계 및 생산과 소재의 비중은 같은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유형별 주제에 따른 연구방법에 대한 분석은 학위 논문과 학술지논문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연구유형과 관계없이 분야별로 주제에 따라 특정 연구방법이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신발 분야의 시장 확대에 따라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존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새로운 연구를 시도하는 연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주제별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게 하여 중복되는 주제의 연구를 피하고 미흡한 연구 분야를 발굴하여 새로운 주제에 대한 연구의 수행을 도울 것이다. 둘째, 이를 통해 주제 간에 균형 있는 연구와 발전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로서 심도 있는 연구의 성과가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신발 산업 분야의 질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신발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신발 산업의 확대와 더불어 관련 교육의 확대, 전문화와 함께 신발 산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분석에 있어 최근 10년간의 연구를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논문이 총 215편으로 각 항목의 사례 수가 충분하지 못한 점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향후에는 신발 산업이 날로 확대되어감에 따라 관련 분야의 연구 역시 확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주제와 방법을 활용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Vol.33, No.8, pp.1343-1344, 2009.

- [4] John W. Creswell,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공역,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학지사, p.125, 2015.
- [5]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24147&cid=42125&categoryId=42125>, 2018.11.13.
- [6]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30845&cid=42266&categoryId=56815>, 2018.11.13.
- [7] 성태제, 시기자, *연구방법론(2판)*, 학지사, p.219, 2018.

#### 저자 소개

이재영(Jae-Young Lee)

정희원



- 2007년 8월 : 홍익대학교 의상디자인전공(미술학석사)
- 2016년 8월 : 홍익대학교 디자인공예학과(미술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평택대학교 패션디자인및브랜딩학과 교수

<관심분야> : 슈즈, 패션, 상품기획

#### 참고 문헌

- [1] <http://news.hankyung.com/article>, 2018.08.02.
- [2] 한수연, 김영선, “패션연구 및 패션디자인·미학·복식사 분야 관련 연구동향 -2004~2013년 <Fashion Theory> 및 <복식문화연구>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Vol.22, No.4, p.71, 2014.
- [3] 김미현,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관련 국내 연구동향